

이

엔

사

소

식

## 삼성전자

### 벨지움 BTM과 포괄적인 기술협정 체결



삼성전자(대표 강진구)와 세계적인 정보통신업체인 벨지움의 BTM(Bell Telephone Manufacturing Co.) 사간의 포괄적인 기술협력 협정이 최근 체결되었다.

이들 양사는 ISDN용 교환기, 통신기기, 전송설비 등 통신분야와 정보 시스

템사업 및 특수 반도체 등 두 회사의 공통사업 분야에 걸쳐 기술협력, 공동연구개발 및 세계시장의 공동개척 등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 대우통신

### 저가형 팩시밀리 2기종 잇단 출시



대우통신(대표 박성규)은 저가형 팩시밀리인 유니팩스 DF-33과 DF-35 두 기종을 개발하여 이달부터 시판에 들어간다. DF-33은 B4송신, 기록지 50M 내장, 자동 CUT, 중간조 재현, 윈터치 송신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사무용 팩스로 개발되어졌으며, 가격은 113

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사무용 스탠다드 팩스에서 가격 혁신을 이룩한 제품이다.

DF-35는 윈터치, 기록지 50M 내장, 중간조 재현 등의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팩스로 현재

팩스 시장에서 100만원 이하의 모델 중에서 B4송수신이 되면서도 사무용 팩스 가격을 퍼스널 팩스의 가격에 접근시킨 제품으로 97만원(부가세 별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대우통신은 전년도에 이미 출시한 130만원대 팩시밀리인 유니팩스 DF-30과 함께 DF-33, DF-35를 가세함으로 고가품 시장이었던 팩스 시장에 또한번 가격 혁신을 가져와 저가 팩스 선택의 폭을 넓혔다.

## 삼성데이터시스템

### 의류생산관리시스템 개발 · 공급

삼성데이터시스템(주)(대표: 임경춘)은 최근 컴퓨터를 이용한 봉제공장의 생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제일모직 안양공장에 설치 완료하였다.

HP 1000/A700을 주전산기로 하여 운용되는 의류생산관리시스템은 봉제공장의 재단공정, 봉제

공정, 완성공정, 어소트(ASSORT)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들을 바코드 리더(BARCODE READER)를 통해서 컴퓨터에서 수집하고 이 데이터들을 관리하여 공장내 각 공정들의 상황을 리얼타임으로 파악하게 된다.

또한 이 시스템은 주문자(ORDER)별 납기 및 생산량, 수정, 불량 등의 관리를 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시간(JUST IN TIME)관리와 사무생산성 및 제품생산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문자관리를 해줌으로써 제품 납기에 대한 대 고객 신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제품생산계획 및 진행관리와 원 부자재 수급현황 파악 및 원가관리, 재단공정, 상하의 봉제공정, 완성공정 및 어

소트(ASSORT)공정관리, 제품의 납기관리, 현장라인의 생산현황 조회, 각종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한편 삼성데이터시스템은 미국의 McCORMACK & DODGE사와, 모든 재무·회계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응용 S/W인 GL:M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응용시스템개발 TOOL인 MILLENNIUM SDT(SYSTEM DEVELOPMENT TOOL)등 각종 응용 S/W 패키지에 대한 국내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종합적인 재무·회계시스템인 GL:M은 고정 및 변동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외화환산 및 다양한 원가배분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재무계획과 재무모델을 GRAPH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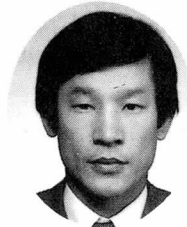
## 콤텍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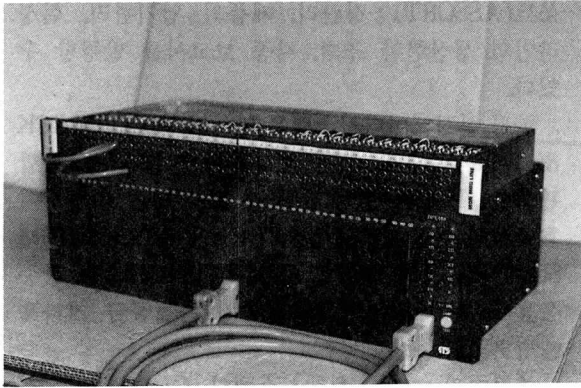
### 패칭 프리덕트 개발, 시판중

(주)콤텍시스템(대표 남석우)은 디지털 및 아날로그 신호의 모니터와 스위칭 기능을 제공하는 장비 디지털 패치 유닛(DPU 600)과 아날로그 패치 유닛(ANA LOG PATCH UNIT)(APU 600)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 생산중이다.

데이터통신 전문업체인 콤텍시스템이 생산중인 DPU 600 및 APU 600은 케이블을 제거할 필요가 없이 전면에서 패칭코드(PATCHING CORD)로서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회선에 대한 패칭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DPU 600은 LED를 통한 송·수신 데이터의 감시가 가능하다.

주요특징으로는 DPU 600은 SUB-RACK당 16개의 24 PIN EIA RS-232C(CCITT V.24) 인터페이스





이스를 수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 인터페이스 모니터링기능을 내장하고 있고, APU 600은 SUB-RACK당 2WIRE 48회선, 4WIRE 24회선을 수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패킹 프러덕트는 온라인 네트워크에 대한 테스트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신속한 테스트를 통해 네트워크에 대한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콤텍시스템이 개발한 패킹프러덕트



## 편집후기

수혜의 현장은 한마디로 '참혹' 그대였다. 삼시간에 모든것을 앗기고 뺏나간듯 주저않은 이재민들의 허탈한 모습들이 우리의 눈시울을 적신다. 앞친데 덮친다더니 있던 비행기 추락사건들로 온 국민들이 시름에 잠겨있다. 어찌 천재로만 돌리고 말일인가?

지난해말 우리는 기상해석과 우주개발등 과학기술분야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슈퍼컴퓨터 '크레이 2S'를 설치하고 본격가동에 들어가지 않았던가, 연산속도가 기존의 대형컴퓨터보다 1백배 이상 빠른 초당 20억회, 주기억용량 1억2천8백만자인 이 슈퍼컴을 도입하면서 우리는 정확한 기상예보와 완벽한 수방경보시스템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올해도 여느해처럼 수마가 휩쓸고 간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면서 인류가 이루어놓은 문명에 대한 불신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회의를 갖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반성을 해보기도 한다.

모든 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적절한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며 재난에 대비하는 완벽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고도정보화사회가 된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행한 사태는 아득한 기억으로 남으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는 지금 제2의 개화기를 맞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1백 10여년전 우리선조들이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근대화에 나섰다면 후손들이 외침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리는 불행한 역사를 겪지 않을수도 있었을 거라는 자조와 함께.

1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겪었던 상황과 비슷한 문명의 대전환기에 놓여있다. 바야흐로 산업화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모두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주인공이라는 사실과 책임을 자각하고 우리가 한숨지었던 원망섞인 한탄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물려주는 우를 재차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는 땀흘려 일하는 국가의 편에 선다는 사실”도 가슴깊이 새기며…….